

# 창녕군 창녕낙동강유채축제 올해도 취소 집에서 편하게 랜선으로 구경하세요!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낙동강유채축제 위원회와 함께 2021년 창녕낙동강유채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조속히 종식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녕낙동강유채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히며 관련 부서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군은 축제 취소는 물론 3월 26일부터 유채단지과 남지개비리길도 전면 폐쇄했다. 따라서 상춘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출입을 금지하며, 유채꽃 개화 시기 혹시나 모를 방문객이 있을 것을 대비해 용역업체,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차량과 방문객 출입을 통제하고 노점상 단속을 강력하게 해 코로나19 확산과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창녕낙동강유채축제는 유채꽃 개화 시기인 4월 전국 단일면적 최대 규모인 남지유채단지 일원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및 공연, 볼거리 등을 제공해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창녕군을 대표하는 봄꽃 축제다. 2019년 경상남도 지정 대표 문화 관광 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굽이굽이 흐르는 낙동강과 어우러진 절경에 한반도 튜립정원, 태극기 정원 등 110만㎡의 유채단지는 한 폭의 풍경화와 같아 인생샷 포토존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을 자아내고 도시

민들에게는 자연경관만으로도 힐링을 선사하는 명소로 창녕 구경(9경) 중 4경이다.

또 일제강점기에 설치돼 경상남도 등록문화재 제145호로 지정된 '남지철교'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 방어선 전투의 장소로 민족의 역사와 상흔이 서린 다리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제작 양식이 같으며, 역사의 아픔과는 다르게 물결이 치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이 낙동강과 어우러져 많은 방문객의 눈길을 머물게 한다.

축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올해도 축제가 취소돼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상춘객에게 방문을 자제하고 랜선 꽃놀이로 대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내년 축제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돼 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유채꽃 단지를 촬영해 창녕군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전국민이 유채꽃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유채꽃 만개 시기인 4월 중순에 맞춰 창녕군 공식 유튜브에 유채꽃 랜선 꽃놀이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



# 창녕 9경



1 **우포늪과 따오기**



2 **화왕산 억새와 진달래**



3 **부곡온천**



4 **낙동강유채축제와 남지개비리길**



5 **산토끼노래동산과 우포 잠자리 나라**



6 **만옥정공원과 진흥왕 척경비, 술정리동삼층석탑**



7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8 **3·1민속문화제와 영산 만년교**



9 **관룡사와 용선대**